발간자료

• **퀀트:** 삼성전자 호실적과 반도체 Big2 추정치 상향으로 Long 포지션이 형성되며 반도체 실적 강세 지속. 반도체 외 증권주 실적은 호황인 반면, 2차전지, 화장품, 소재, 은행 등은 눈높이 계속 낮아지는 중. 특히 증권주는 Long, 은행주는 Short 포지션이 형성되며 금융업종 내에서도 실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

(계량분석 김경훈)

• **CES:** 자동차: 자동차에서 로봇 생태계로 진화. (1) Boston Dynamics의 대량양산 Timeline 공개 시작. 2030년 3만 대, 미국 중심 제조 생태계 형성 임박. (2) Boston Dynamics의 Atlas Spec 공개로, 기존 휴머노이드와의 경쟁우위 확인. 로보틱스: 상상이 아닌 검증의 단계로 (1) 상용화 단계가 가장 앞선 영역은 산업로봇. 피지컬 AI를 통해 인식-판단-동작 자동화를 구현함. 통제 환경에서 활용되는 특성상 섹터 내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를 전망 (2) 휴머노이드 주요 업체들이 구체적인 양산 및 도입 계획을 제시하며 현실화가 체감됨. 다만 속도, 정확도 등은 여전히 개선 필요. 반도체: 장기 호황의 다음 단서 (1) 26~27년 로봇, 자율주행의 Q 효과는 이른 시점일 것으로 판단. 대신 과도기에서 대안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 기회요인이 형성될 가능성 포착. (2) 본격적인 두뇌(Physical AI) 고도화가 26년 진행 → 검증된 하드웨어(안경형) 기반 스마트 글래스의 세트 자리매김은 빠르면 27년부터 발생할 전망

(자동차 유지웅/ 반도체 고영민/ 운송 오정하)

• **조선 Weekly:** 신조선가지수 소수점 하락, 중고선가지수 2p나 상승. NYK와 OCEAN이 HD현대중공업에 LNG선 4척 발주, 옵션 4척 보유. 2029년 1분기까지의 인도물 신조선가는 아직까지 인상, 회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일본 MOL과 인도 ONGC는 삼성중공업에 VLEC 2척 발주를 협의 중. HD한국조선해양은 2026년 무난한 수주와 매출 가이던스 제시. 특수선 건조 이력이 없는 삼성중공업도 MRSA 취득을 신청하며 MASGA 대비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자동차 Weekly:** CES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로봇사업을 집중 공개. 현대차의 미디어데이 발표의 핵심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신형 상업용 아틀라스 공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30년 기준 3만대 규모 생산계획을 발표. 현대차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인 HMGMA에서 로봇 훈련센터인 RMAC을 설립. Non-Tesla 진영의 Nvidia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 Alpamayo로 대부분의 카메이커가 대량의 합성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게됨

(자동차/2 차전지 유지웅)

• **12월 바이오시밀러:** 12월에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처방 실적 시현. Infliximab 바이오시밀러 Inflectra(셀트리온)와 Renflexis(SB), Rituximab 바이오시밀러 Truxima(셀트리온)는 안정적인 처방 실적 흐름 지속. Bevacizumab 바이오시밀러 Vegzelma(셀트리온)는 처방 확대로 9%대 M/S. Ranibizumab 바이오시밀러 Cimerli(SDZ), Byooviz(SB)는 마케팅 및 유통 구조 변화로 처방 공백, 부진한 실적 지속. Ustekinumab 바이오시밀러 Steqeyma(셀트리온)는 Yesintek(BION)에 이어 수량 기준 M/S 2위 유지. Zymfentra(셀트리온)는 기관 및 소매 전반에서 처방 수요 확대 흐름 유지. 기관 처방액은 11월 조정 이후 증가 추세

(제약/바이오 이지수)

• **엔터 Monthly:** 12월 총 225만장(YoY-55.7%), 4사 합산 132만장(-67.2%). 하이브 53.4만장, 에스엠 45.4만장, JYP 25.4만장, 와이지 7.8만장. 주요 IP들의 컴백 부재 및 전년 동월 기저가 높아(스키즈, 트와이스 컴백) 부진한 판매량 기록. 12월 엔터 4사 합산 월간 리스너 수 2.7억명(MoM+0.5%). 컴백 IP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 11월에 이어 최고치 수준 유지. 컴백 없이도 글로벌 리스너 기반이 유지 중. 코르티스는 별도의 컴백 없이도 월간 리스너 수가 직전 직전 3개월 평균 670만명에서 810만명으로 재차 증가, HYBE 소속 보이그룹 중 BTS에 이어 2위. 2월 NBA 축하 무대와 이후 이어지는 컴백을 통해 추가적인 레벨업 기대. 1H27부터는 투어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첫 투어부터 북미 지역을 포함한 월드투어도 가능할 전망

(엔터 임도영)

• **은행 Preview:** 4Q25E 순이익(YoY +12.0%, QoQ -61.0%) 전망. 대체로 컨센 하회. (1) 비이자이익 변동성 확대, (2) 각종 비용 부담 영향. 이익성장률은 추가 근거 확인이 필요. 주주환원은 기대할 재료 남아있음. 총주주환원율 우상향 전망 유지

(금융 김지원)

• **LG에너지솔루션_BUY/500,000원:** LG에너지솔루션의 4Q25 잠정실적 공시. 매출액은 6.14조원(YoY -4.8%, QoQ +7.7%), 영업이익은 -1,220억원 기록. ESS사업이 금번에도 QoQ +50%을 넘어서는 매출성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 3Q25 6천억원 > 4Q25에 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 ESS 출하 급증에 힘입어 연간 AMPC 대상 배터리 출하량은 2025년 31GWh > 42GWh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

(자동차/2차전지 유지웅)

• **LG전자_BUY/120,000원:** L4Q25 잠정 연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84억원)를 하회한 -1,094억원 기록. 배경은 HS(가전) 사업부와 연결 자회사의 시장 기대치 하회. HS 부진은 희망퇴직 비용 및 유통재고 효율화에 따른 일회성 비용 영향. 수요 둔화보다는 선제적인 비용•재고 효율화 영향으로, 사업 경쟁력 훼손은 제한적. VS 사업부는 전분기에 이어 5%대 OPM 예상, 견조한 수익성 확인. 26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향후 주가 트리거는 하이퍼스케일러향 AI 데이터센터 냉각 진입 가시화. 주요 파트너사와의 사양 협의 및 퀄 테스트가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 연내 수주 가시화 기대
(전기전자 김연미)

• **삼양식품_BUY/1,800,000원:** 4Q25 매출액 6,759억원, 영업이익 1,485억원 추정. 적정주가는 '26년 EPS에 적정 P/E 25배(유지)를 적용해 도출. 최근 주가 급락으로 현재 주가는 '26년 추정치 기준 P/E 17배까지 하락. 동시에 구글 트렌드 지표는 '26년 1월 11일 기준 최고값 기록. 해당 지표를 주가 선행 지표라 가정하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 이에 더해 1) 밀양2공장 램프업 수출액 반영 및 잠재적인 생산량 증대 가능성, 2) 미국법인 매출액 QoQ 증가 지속, 3) 소스 관련 글로벌 프랜차이즈 콜라보 가능성 고려 시, 분할 매수 전략 유효
(음식료 이다연)

• **현대제철_BUY/46,000원:** 컨센서스 하회 실적 전망. 고로 판매량 부진, 영업일수 부족, 달러원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의 증가가 원인. 긍정적인 점은 전기로 회복의 시작. 철근 유통가격은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 최근 철근 수출 증가는 현대제철의 미국 판로 확보로 추정. 열연과 후판 수입산 재고가 1H26E내에는 해소 가능하다고 판단해 2026E 실적 회복 기조 이어갈 수 있을 전망
(철강 이정우)

• **대한조선_BUY/95,000원:** 놀라운 수익성에서도 2026년에 더 성장. 그리고 올해 수주에 따라 2028년에도 또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는 1) 단납기 슬롯의 협상력, 2) 탱커와 8,000-TEU급에서 강력한 신조 수요 때문. 한국에 이런 강력한 경쟁력의 중소형 조선사가 존재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 응원의 중장기 투자가 필요.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95,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9.4%	HOLD : 10.6%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